

작은 교회를 잇는 다리, ‘위 브릿지’ 사역에 대한 관심

**팬데믹 상흔 속에서 시작된 연대 플랫폼 역할
재정 후원과 컨퍼런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색
2025년 제4회 컨퍼런스 앞두고 본질과 기준 다지기**

미주 기독일보(대표 이인규 목사)가 추진하는 ‘위 브릿지(We Bridge)’는 작은 교회가 고립되지 않도록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역이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현장에서 출발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와 사모가 소진돼 가는 현실을 목격한 뒤에야 가능한 판단이었다. 무엇이 급한지 분명했다. 위기는 진단보다 연결을, 비판보다 동행을 요구했다.

그때부터 위 브릿지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목표로 걸음을 뗐으며 사역의 시작은 분명하다. 2019년 팬데믹으로 미국 전역에서 예배 공간이 닫혔다. 재정 흐름이 막히고 목회 현장은 공백이 커졌다. 작은 교회는 더 취약했다. 본지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을 논하기 전에 서로를 잇는 다리를 놓

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뢰가 먼저였다. ‘누가’와 ‘무엇을’보다 ‘왜’와 ‘어떻게’가 급했다. 그 ‘왜’는 작은 교회가 지역 복음 생태계의 모세혈관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어떻게’는 현금성 지원과 관계망 회복이었다. 첫 걸음은 재정 후원이었다. 2023년 1월부터 매월 500달러씩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표적은 재정난으로 사역이 흔들리는 소형 교회다.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다. “혼자가 아니다.” 이 후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사역의 연속성을 불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도움을 받는 교회만 변하는 것도 아니다. 나눔에 참여하는 교회와 기업, 개인의 시선도 바뀐다. 지역 교회는 경쟁자 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다리의 첫 기둥은 그렇게



세워졌다.

두 번째 죽은 컨퍼런스다. 대상은 개척 10년 미만의 목회자와 사모이며, 컨퍼런스의 주제는 현장성이 핵심이다. 영적 재충전과 실제 운영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면 오래 가지 못한다. 첫 컨퍼런스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들과 교계의 리더가 작은 교회 목회

자와 사모를 일으켰다.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의 언어가 통하는 곳에서 회복은 빨랐으며 사역의 빠대는 더 견고해졌다.

몸과 영혼의 회복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배와 재정, 목회와 가정, 리더의 영성과 팀의 지속가능성이 한 몸처럼 이어져야 한다. 작은 교회를 위한 사역이라면 무엇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 무엇을 과감히 비워야 하는지 기준도 정리됐다.

회복은 리스트가 아니라 루틴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역의 의미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고립을 막는 연결이다. 작은 교회라서 문제가 아니라, 혼자여서 위험하다. 위 브릿지는 상당 창구이자 도움 요청의 첫 관문이 된다. 둘째, 재정과 관계의 이중 안전망이다. 현금 지원과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셋째, 학습 공

동체의 구축이다.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일대일 멘토링과 지역 단위 소그룹이 뒤를 잇는다. 좋은 멘토로부터의 배움은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도전이 되고 습관이 된다.

작은 교회가 지역 복음 생태계의 최전선이라는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일이다. 그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의 돌봄과 전도는 빠르게 약해진다. 위 브릿지는 작은 교회가 제자리에서 계속 숨 쉬도록 돋는다. 큰 교회는 재원과 자원을 나눈다. 이민 교회가 안고 있는 균열과 피로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 교회는 훌로서지 않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서는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위 브릿지는 그 다리를 세운다. 돈으로만 세우지 않으며 기도와 연대, 배움과 책임으로 세울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이인규 대표는 미주 전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며 이 사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기독일보 편집부

“손현보 목사 구속, 고신교회 전체 정치적 탄압 신호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정태진 목사)가 9일 긴급임원회를 갖고 손 목사 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신 측은 이 성명에서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은 ‘도망의 염려’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가 도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시 단순히 죄의 경증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

의 주거, 신분, 행적 등을 종합해 현실적·구체적 도주 가능성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현보 목사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 관련 자료 일체가 이미 공개된 유튜브 자료이며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고신 측은 “이번 고신목사의 구속은 정치적 사건으로 단순히 목사 개

인을 넘어,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고신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벌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또 “매주 설교하는 고신교회의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임을 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율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213.820.3704
MART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전통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꼬딱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olars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 OC 714.702.0151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이상훈 총장 “교회여, 생명으로 U-TURN 하라”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 신간
〈살아 움직이는 교회 Re_Vive
Church 선교적 공동체 여정을
위한 안내서〉

이상훈 총장의 신간 〈Re_Vive Church 리라이브 처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올해 7월 교회성장연구소를 통해 출간됐다. ‘함께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길잡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이 책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의 실천을 다룬다. 지난 9월 2일(화) 오전 가디나에 있는 미성대학교 총장실에서 이상훈 총장을 만났다.

이번 신간에 앞서, 〈리폼처치 RE_FORM CHURCH 변혁을 이끄는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2015), 〈RE_NEW CHURCH 리뉴처치 창조적 사역을 위한 교회 간신 모델〉(2017), 〈RE_FRESH CHURCH 리프레시 처치 팬데믹 이후의 교회를 찾다〉(2022) 등을 통해 선교적 교회를 연구해온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교회 성도들 안에 선교적 교회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실천할 수 있는 책을 쓰게 되었다.”

“목회자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도, 성도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교회의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선교를 제3 세계와 특정 사역자에게만 국한시키는 전통적 이해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방을 향해 주신 사명이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롭고 청의적인 시도가 많이 나온다. 성도들이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초대하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역들이 들어온다. 교회 공동체와 훈련도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동적인 교회들이 탄생한다. 미국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크게 성장한 곳들을

보면,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문화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어 그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마치면 선교사 훈련을 한다. 생활 선교사로 결단하면 해외 선교사와 동일한 훈련을 받고, 자기 직업이나 커뮤니티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선교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준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파송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자원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초청해 관계를 맺는다.”

선교적 교회의 영성 · 예배 · 제자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3부로 구성된다. 첫 부분은 개인과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의 회복을 다룬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영성 · 예배 · 제자도를 탐구한다. 이상훈 총장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영성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영성은 신비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선교적 영성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선교적인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선교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핵심 중 하나는 환대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우리 삶의 공간을 열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

선교적 교회의 허브, 선교적 공동체

3부에서는 ‘함께 세워가는 선교적 공동체’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지금까지는 선교를 개인의 소명이나 역량에 맡겼다면,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는 소그룹과 공동체 단위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돋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북미 지역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Tampa Underground, Kansas City Underground, Grace Midtown Church 같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구성해 일상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는 이런 모델(새중앙교회 - 황덕영 목사, 움직이는교회 - 김상인 목사)이 아직 많지 않지만, 최근에는 문화적으로 소그룹 중심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어 교회가 이런 실험을 하



미성대학교 총장, Missional Church Alliance (MiCA) 대표 디렉터 이상훈 교수. ⓒ 기독일보

기에 시의적절하다.”

특히 이 책 8장은 기존 소그룹과 선교적 공동체를 비교하며, 선교적 공동체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이 총장은 그 핵심을 “일상 속에서 즐겁고 지속 가능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공동체를 시작할지, 팀을 어떻게 구성할지, 전략과 실행을 어떻게 세울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사회와 접점을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의 필요를 채워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는 자연스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세상의 접점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 마인드

“독서를 끊을 시작해 보자고 하면, 믿지 않는 분들도 ‘이건 한번 가보고 싶다’며 관심을 보인다. 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또 어떤 이들은 난민이나 사회봉사 영역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모임을 반복하다 보면 관계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복음을 연결된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선교를 강조해도, 성도들은 은혜만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동

순한 친교 차원이 아니라 불신자와 이웃을 향한 선교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역을 선교적 방향성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런 접근은 성도들의 의식을 바꾸고, 실제로 교회 밖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통로를 열어 준다.

“오늘날 영성을 소비주의로 표현한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상품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 종교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부분이 매우 강하다. 교회들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고 보다는 교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본회퍼가 ‘값싼 은혜’에 대해 이야기 했듯, 진정한 제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도가 필요하다.”

레슬리 뉴비긴과 선교적 교회의 등장

“레슬리 뉴비긴을 알아야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서구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었다는 자각을 던졌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교회란 무엇인가. 셋째, 변하지 않는 복음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서구교회가 경험한 빼아픈 자각이 없던 한국사회에 ‘선교적 교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이 운동이 사회활동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카페나 도서관 같은 활동으로 대체해 버렸고 그래서 오해와 비판도 있었다.

“저는 2011년과 2014년에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 처음 강연을 했고, 이후 책도 쓰고 강연을 계속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미국식 성장주의 교회나 대안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특히 전통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좌파적 운동’으로 오해하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철저히 복음을 뿌리로 한 운동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없는 사회 활동 중심의 운동은 모두 생명을 잃고 사라졌다. 복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은 많이 의식이 바뀌었고, 선교적 교회 역시 복음과 제자도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토마스 맹, 주디 한 기자

통큰통독
밀씀이 삶이 되어

북콘서트

통큰통독 저자 주해홍 목사와 함께하는

2025년 9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
(Coffee와 다과 제공)

LA FACE MART
1458 S San Pedro St. #320
Los Angeles, CA 90015

CONTACT
213.215.1310
562.569.1189

도서 애스라

연대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읽게 하는 연대기 해설 성경 “성경 전체 공부와 통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완결판”



주제총 판권 1,600쪽 | 정가 89,000원 | 공급처 비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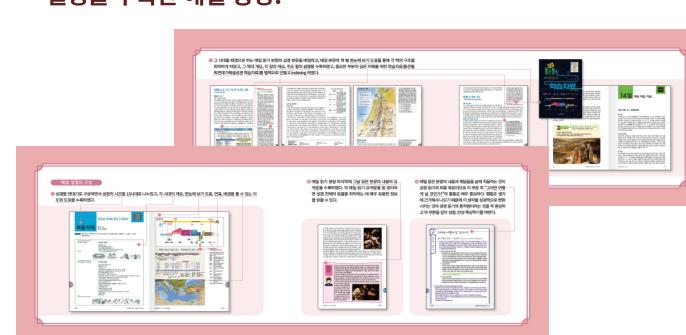
개역개정



주제총 편집 186쪽 | 정가 56,000원 | 공급처 비전복

- 성경을 연대기로 구성하면서 성경의 시간을 13시대로 나누었고, 각 시대의 개요, 한눈에 보기 도표, 연표, 배경을 볼 수 있는 지도와 도표를 수록.

- 신학적 전문성을 가진 주석이나 해석을 수록한 것이 아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설명을 수록한 해설 성경.



- 본 자료집은 통큰통독 연대기 해설 성경의 자매편으로 통독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 514개 항목의 자료를 편집.

통큰통독 본 교재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 일독 통큰통독』과 『통큰통독 연대기 해설 성경』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학습자료로 함께 공부하면 유익할 것이다.

이 책은 핸드북 형식으로 편집되었지만 『통큰통독 연대기 해설 성경』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독립 자료로 활용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연대기 해설 성경』과 연결해서 활용하기를 권한다. 또한 학습자료의 각 항목의 내용이 세계관 정립과 관련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본 도서출판 애스라에서 발간된 『기독교 세계관 핸드북』의 항목과 연결했으니 꼭 참고하여 정확하고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유익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함께는 불편합니다. 혼자는 편해요. 그러나 모여야 합니다”

남가주 청년 연합 찬양 집회
The Calling, 9월 7일
동양선교교회서 개최
11월 8일 원데이 컨퍼런스
선한청지기교회서

“함께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함께 할 때,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지난 9월 7일(주일)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청년 연합 찬양 집회 The Calling가 개최되었다. 연합 찬양사역팀의 찬양집외에 이어 김명성 목사(LA온누리교회 청년부)는 애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다.

그는 “함께는 불편합니다. 혼자서 하는 건 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함께는 다릅니다. 신경 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쩔까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교단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며 공동체의 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 애덴동산에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하신 하나님, 죄로 깨어진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짚으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



남가주 청년 연합 찬양 집회 The Calling이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김명성 목사(LA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가 “함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 ‘함께함’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깨어진 함께를 회복하셨어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 ‘함께함’을 이어가는 공동체”라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레드우드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위쪽으로 가면 레드우드 나무가 나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120m까지 자라요. 120m까지 자라려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되겠습니까? 보통 식물은 높이 올라가는 만큼 뿌리가 내려간다고 얘기 하거든요. 그럼 레드우드는 뿌리가 120m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3, 4m밖에 안 내려갑니다. 근데 안 넘어져요. 왜일까요? 뿌리가 옆으로

3, 40m를 뻗어갑니다. 그리고 옆 나무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해변가에 태풍이 와도 홍수가 나오고 저 높은 나무들이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붙잡아주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 또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인용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너무나 힘들 없었어요. 그라면서 나온 것이 개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공동체 필요 없어요. 아니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믿음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찢어놓으면 우리 신앙이 식어버려요. 캠프 파이어 할 때, 숯이 모여있으면 계속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서 밖으로 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의 훈문에 빗대어,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성령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교와 기도에 이어 선한청지기 교회의 마성희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60명이 모여 작은 수련회로 시작된 남가주 청년 연합집회 The Calling은 지난해에는 9개 교회 240여 명이 모였고, 올해는 12개 교회가 함께했다. 그는 11월에는 15개 교회, 300명 이상 청년이 모이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이날 그는 함께한 교회들을 한 교회씩 호명하며 격려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남가주 생생명교회 △동양선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LA온누리교회 △유니온교회 △ANC온누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지오엔디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들은 11월 8일,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리는 ‘Reignite’ 원데이 컨퍼런스에 달라스 뉴송교회의 현지용 목사를 초청해 이 연합 운동을 이어 나가게 된다.

주디 한 기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17회 사랑의 찬양제 개최

선교와 이웃 위한 하모니
9월 21일 5시 나성한미교회

참여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어 온 행사로, 다양한 성가단과 찬양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회장 이득표 장로)가 제17회 선교와 이웃 돋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를 연다.

9월 21일(주일) 오후 5시에 나성한미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사랑의 찬양제는 초가을 정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남가주 장로 성가단(지휘: 김정대), 한인 로고스 교회(지휘: 이홍우), 실비치사랑의 교회(지휘: 송종현), 무궁화여성합창단(지휘: 지경), 나성한미교회(지휘: 이준실), 은혜 찬양단(지휘: 지경), 미주 여성코랄(지휘: 오성애), 남가주장로 성가단 중창단(지휘: 김정대) 소프라노 김시연,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출연한다.

행사는 나성한미교회(2727 Du-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주최한 제14회 사랑의 찬양제 모습.

rree Ave., El Monte, CA 91732)에서 열리며, 문의는 (562) 972-4548, (909) 319-2158로 할 수 있다.

이득표 회장은 “이번 찬양제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미주 기독일보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조셉 리 기자

집주인과 분쟁이 있으신가요?
세입자 권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정의진흥협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입자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 과도한 임대료 인상
- 미반환 보증금
- 거주 환경 적합성 문제
- 수리 및 유지보수 미비
- 퇴거 방어, 임대 계약 분쟁
- 집주인과의 소통 문제 및 분쟁
- 그 외 세입자 권리 전반

정의진흥협회 무료 법률 클리닉

- ▶ 일시: 9월 27일 <토> 오전 10시~오후 1시
- ▶ 장소: 미주평안교회 Mijoo Peach Church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전화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관련 기관 안내 및 연계, 문서 작성 지원, 법원 동행 전문 변호사의 전체 법률 대리도 가능합니다.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는 1983년에 설립된 비영리 아태 법률 서비스 센터입니다.



한국어 헬프라인으로 상담 및 예약

클리닉 개인 상담 예약

(800)867-3640



(800)867-3640 또는 ajscocal.org에서 온라인 폼을 작성해주세요. e-mail. askHP@AJSOCAL.ORG

웨스트힐 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칸타타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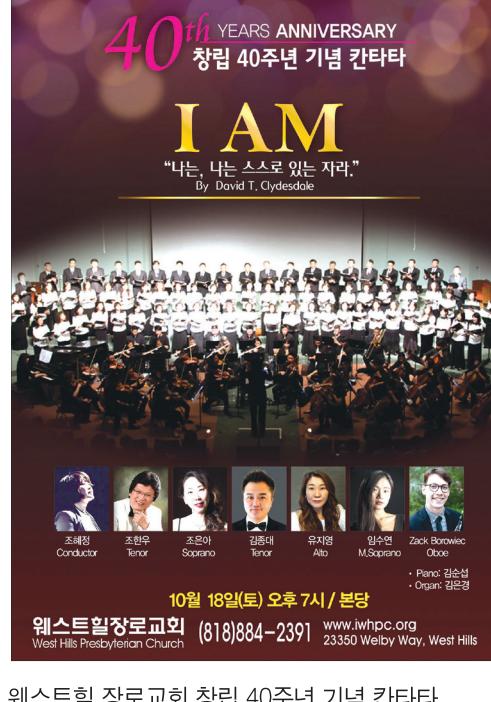
10월 18일(토) 7시

웨스트힐 장로교회(오명찬 목사)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8일(토) 오후 7시, 본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칸타타〈I AM〉을 공연한다.

지난 40년간 사역과 성도들의 헌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데이빗 T. 클라이즈데일 작곡의 〈I AM〉은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씀을 담은 곡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만찬, 젯세마네 기도, 체포와 고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까지 18여 곡의 노래로 묘사한 작품이다.

지휘 조혜정, 테너 조한구, 김종대, 소프라노 조은아, 알토 유지영



웨스트힐 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칸타타.
10월 18일(토) 오후 7시 / 본당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818)884-2391 www.whpc.org
주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교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열려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818)884-239, iwhpc.org

주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제10회 찬양선교음악회

미주찬양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가 주최하는 ‘제10회 찬양선교음악회’가 오는 9월 21일(주일) 오후 6시 30분에 생수의 강 선교교회(최형규 목사)에서 열린다.

찬양가를 보급하고 찬양사역자 및 찬양팀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LA 카운티에서 3팀(LA 남성선교합창단, LA 웨스트힐스, LA 크리스천싱어즈), OC 카운티에서 3팀(카이로스남성중창단, OC 코리언마스터코랄, 하나콰이어), 소프라노 이영주가 무대에 선다. 공연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토伦스조은교회 제3대 담임목사 가명훈 목사 확정

가명훈 목사 96.8% 찬성표

토伦스조은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가명훈 목사가 김우준 목사의 뒤를 이어 섭기게 된다.

김우준 목사는 한국 지구촌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이동한 이후 공석이었던 토伦스조은교회가 지난 8월 31일(주일) 전교인 임시사무총회에서 청빙 투표를 진행한 결과, 96.8%의 찬성으로 가명훈 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한다고 발표했다.

가명훈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소속 시카고 북부 링컨사이어한인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했다. 그는 9월 28일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며, 담임목사 취임식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교회측은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 신뢰가 깊이 뿐리내려 서로 하나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담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민선 기자



가명훈 목사가 토伦스조은교회 제3대 담임으로 청빙이 확정됐다. ©torrancegcc.org

LA교육원장 하모니카앙상블에 감사

LA교육원 강전훈 원장이 9월 9일(화) 오후 1시 2분 LA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 이하 시니어센터)를 찾아 하모니카 앙상블을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날 강 원장은, 시니어센터 하모니카 클래스 회원들을 만나, 지

난 5월 31일 한국 정부와 LA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아케디아 지역 ‘더 습스 앤 샌타아니타’서 개최한 ‘2025 LA 한국유학박람회’ 행사 개막식에, 시니어센터 하모니카 앙상블이 미국 국가를 연주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원장은 49개 클래스가 진

행되고, 매주 1,500명, 한 달에 5,500명이 참가하고 있는 시니어센터의 프로그램을 보고 놀라며 “LA교육원과 협력할 것은 적극 돋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ANC 화평회 주관 영화 ‘무명’ 상영회

9월 20일(토) 오전 10:30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태형)에서는 화평회(이진형 담당목사, 회장 임연재 장로)주관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유진주 감독)상영회를 9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 ANC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연다.

CGN 20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일제 강점기, 고통 가운데 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두 명의 무명(無名)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 개신교 최초의 해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접한 후, 일본인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고난 받는 조선인들을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인처럼 살면서

[ANC 온누리교회 화평회 주관] 특별 영화상영

무명

9/20(토), 영화상영: 10:30am
ANC 본당 (화평회 월례회 후 바로 상영)

받는 조선인들의 친구가 되어 수원 최초의 교회(현 수원동신교회)를 세운다.

오다 나라지(한국명: 전영복) 선교사는 “지금 일본은 조선에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 한다”며 1928년 20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인처럼 살면서

1937년 신사 참배를 거부해 폐교된 평양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에서 1천여 명의 조선인 성도 앞에서 닷새 동안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다 투옥되어 고문을 받고 결국 1939년 조선에서 강제 추방당했다.

김민선 기자

일시: 9월 20일(토) 오전 10:30

주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G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센터메디컬그룹

최신 자가혈주사 PRP 테라피 진료 시작!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한 단계 앞선 치료

임유일 내과 · 송홍우 가정의학과 · 김민성 내과 · 김영래 내과



PRP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조직재생치료

PRP 시술은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추출한 후, 혈소판을 뺏아내 환자 본인의 피부 조직이 손상된 부위에 재주사하는 시술입니다.

기존 보존적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투약치료, 물리치료 등)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만성 팔꿈치 통증 환자와 무릎 퇴행성관절염 2~3기 환자에게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농축시켜 얻은 PRP (자가혈소판풍부혈장)를 투여하여 조직재생 및 자가회복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자가치료를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환자 맞춤 치료: 환자마다 다른 통증의 증상과 원인에 맞게, 주치의가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소속 의료진

임유일 내과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714) 583-8569

송홍우 가정의학과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랜하이츠 지점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626) 363-4661

김민성 내과
CALVIN KIM
INTERNAL MEDICINE

4220 W 3RD ST,
STE 201
LOS ANGELES, CA 90020
(213) 487-4141

김영래 내과
NICHOLAS KIM
INTERNAL MEDICINE

5730 BEACH BLVD,
STE 200
BUENA PARK, CA 90621
(714) 594-6962

PRP 테라피는 사전 예약 후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美 기독교인 34% “나는 죄인 아냐” ... 교회 침묵이 혼란 초래

미국 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 산하 문화연구센터(Cultural Research Center, 이하 CRC)가 발표한 〈2025 미국 세계관 조사(American Worldview Inventory)〉에 따르면, 미국인의 84%는 죄의 존재를 믿지만 52%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34%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으며, 자신을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이들 가운데서도 25%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거부했다.

죄의 존재를 인정한 비율은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99%)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개신교회 출석자

(97%), 자칭 기독교인(95%), 가톨릭교회 출석자(94%) 순이었다. 심지어 자칭 비기독교인 중에서도 61%가 죄의 존재를 인정했다.

응답자 중 죄의 존재를 믿는 이들 가운데 72%는 죄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정의했지만, 52%는 ‘절대적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한 70%

는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관점을 수용했는데, 이는 성경적 인간관과 충돌하는 결과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거듭난 기독교인의 74%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으며, 개신교인(66%), 자칭 기독교인(60%)도 절반 이상



©Aaron Burden/Unsplash.com

이 이에 동의했다. 반면 가톨릭 신자 중 절반(50%)만이, 자칭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36%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응답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진술에는 거듭난 기독교인의 85%가 동의했으며, 이어 개신교인(73%), 자칭 기독교인(66%), 가톨릭 신자

(57%), 자칭 비기독교인(23%)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Z세대의 41%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믿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그 같은 관점이 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세대 간 신앙 교육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CRC 연구 책임자이자 바나그룹 창립자인 조지 바나(George Barna) 교수는 “2019년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설교 중 ‘죄’를 언급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강단에서 중심 교리를 거의 다루지 않으면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와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죄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진리”라며 “교회가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치명타가 된다. 죄를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교회 모두의 정체성에 대한 소중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윤준 기자

“문화 선교, 복음의 씨앗 심는 다음 세대 위한 투자”

굿뉴스 콘서트 패밀리(Good News Concert Family, 이하 GNCF)가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에서 ‘2025 GNC 콘텐츠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 영화와 뮤지컬, 찬양사역자, 연주자 등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문화목회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포럼, 2부 페스티벌 순으로 진행됐으며 포럼은 윤성인 선교사(광야아트미니스트리)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영화 ‘CONFideNCE’를 관람했으며 이어 이보람 목사(케어코너즈)가 영화 ‘CONFideNCE’의 제작 계기, 영화예배에 대한 설명 및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저는 영화 ‘CONFideNCE’가 영화라기보다 메시지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제작한 것이고, 상영 후에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는 것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완전한 예배가 된다고 믿는다. 영화 속에서 ‘회사=교회/신앙생활’, ‘사규=성경 말씀’, ‘이메일=기도’, ‘재택근무=온라인예배’, ‘월급 10% 반납=11조’로 풀어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직분으로 오해하지만, 하

나님 앞에서는 직분보다 신앙의 성숙이 승진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컨피던스(Confidence)’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주인공이 답을 얻은 것도 요령이나 기술이 아니라, 회개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사역을 언제나 예배형 상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단순히 감동적인 영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연결한다. 실제로 청년, 어르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이 영상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다. 놀라운 건 4명의 작은 팀과 평범한 성도 배우들로 영화를 제작했지만, 하나님이 공간과 협력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만든 ‘콜링’, ‘스크립트’, ‘컨피던스’는 교회 요청이 오면 파일과 함께 설교 안내문, 소그룹 나눔지를 보내드린다. 그래서 상영이 단순한 문화 소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적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돋고 있다. 실제 피드백 중에는 ‘비본질적인 신앙에서 돌이키게 됐다’, ‘주간보고식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고백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삶에 맞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세대의 언어가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답을 주입하기보다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도구로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 더 많은 교회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경험하길 바라고, 그 안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관영 목사(광야아트미니스트리 대표)가 ‘문화목회의 정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목사는 “2019년부터 저는 복음 중심의 문화 사역자들과 함께 ‘굿 뉴스 콘텐츠 데이/포럼’을 열어, 영화·공연·음악 등 복음 콘텐츠를 목회 현장에 바로 쓰이도록 돋고 있다. 코로나로 공백이 있었지만 올해 다섯 번째로 이어갔고, 우리의 초점은 한결같다. 왜 만드는가를 넘어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답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돌보는 목회자라는 만인제사장 관점에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 논의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문화를 ‘마음의 경작’을 통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경작·보존)에서 사역의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친교·선교·교육이라는 목회의 4대 영역 속에서 문화 예술은 복음을 가장 접 약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 믿는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것으로 둔다.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 비춰 목회는 결국 ‘예수님을 먹여 예수로 살게 하는 일’이라 확신하고, 교회 안의 세례와 성찬을 복음 드라마로 받아들여 문화목회의 성경적 근거로 삼는다”고 했다.

이어 “현장 데이터를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뮤지컬에 대한 선교적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다. 광야아트센터 8년 상설 운영에서 관객의 30~40%가 초·중·고·대학생 임을 확인했다. 복음 콘텐츠가 다음 세대를 말씀과 공동체에 붙들어 두는 효과가 분명했고, ‘요한복음’·‘오병이어’ 같은 작품은 성경 읽기와 신앙 습관의 변화를 촉발했다. 저는 영화 상영을 예배 포맷(상영→말씀→통성기도)으로 끌어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지게 운영하고, 이 원칙을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문화목회 발전소’를 세워 자료·훈련·사역 청정을 제공하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쉽게 적용할 도구를 공급하려 한다. 교회의 응답은 분명하다. 견증된

복음 콘텐츠를 정기 편성하고, 부서·캠퍼스·지역 사역에 맞춘 활용 시나리오를 공동 설계하며, 제작자들과 지속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의 일상 속에 복음을 합당한 문화생활을 심을 때, 성도는 말씀과 교회에 더 단단히 붙어 있고, 한국 교회는 문화 속에서 복음을 또렷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문화목회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김 목사는 “지난 10여년간 문화 선교는 단순한 공연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담은 콘텐츠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사역으로 자리 잡아 왔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오병이어 같은 뮤지컬과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고, 이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마음을 열고 결신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 선한목자교회는 재정과 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 광야아트 미니스트리와 협력하며 문화 선교의 동력을 이어왔고, 문화 선교사를 파송하며 국내외 해외에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넓혔다. 아이들부터 시니어까지 참여하는 극단이 세워지고, 매년 문화 선교주일과 전도 집회를 통해 수백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홍은혜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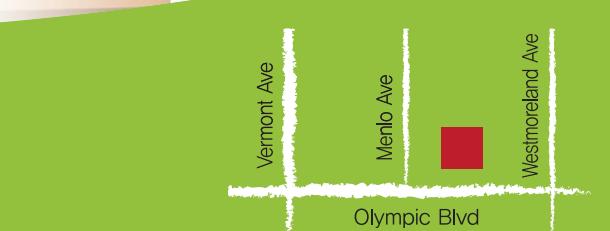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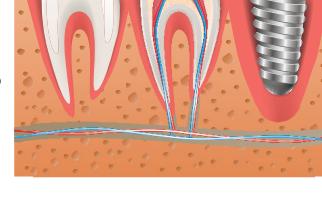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터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기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코리아타운이 처음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던 그 때처럼
이제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메디칼그룹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공산주의와 싸움은 영적전쟁... 美정부, 韓기독교 탄압 주시

미국 보수주의 청년운동가이자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찰리 커크(Charlie Kirk·30)가 최근 빌드업 코리아[김민아(엠킴) 대표] 참석차 방한해 기독교적 가치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찰리 커크는 미국 젊은층에서 영향력이 있는 활동가로, 지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그의 당선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된



(왼쪽부터 순서대로) 빌드업코리아 김민아(엠킴) 대표, 터닝포인트 USA 찰리 커크 대표, 통역을 맡은 조안 목사.

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개혁

자 정신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마르크시즘과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그가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됐다.

그는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을 시

작해 현재는 수천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며 수억 뷔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성장했다"며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많은

주에서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었

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SNS의 활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생각이 다른 이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때로 여러분의 안

전지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에 대해 커크는 "진보는 억압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아닌 교회가 기난한 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가 복지를 맡으면 교회는 작아진다"며 "대한민국에 더 큰 교회와 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그는 "이 나라와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국 내에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연 말미, 커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해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기적으로 태어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문명의 기초이며, 성경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며 "모든 일에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감옥에서 신앙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윤준 기자

공산주의, 자유 파괴하는 어둠의 체제
젊은 세대 캠퍼스서 시작된 운동
SNS 통해 청년 지지 이끌어낸 경험
진보는 억압·피해 이분법에 갇혀 있다
더 큰 교회와 더 작은 정부 필요하다
한국 교회 압수 수색은 잘못된 일
창세기 인용하며 성경의 기초 강조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시대가 온다

손현보 목사 구속보다 더 염려하는 건 '교회의 침묵'

차금법 없는데도 설교 문제삼아 구속
'설마 선은 넘지 않겠지' 했는데 덜컥
목사가 어딜 도망가나... 밑보여서 낙인
'그런가 보다' 남 일로 여기면 답 없어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설교에는 단순히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는 내용도 있지만 선지자적 외침도 꽤 있다. 그러면 그것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입을 다물게 하는 도구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교회 안에서 행해진 설교를 문제삼아 (손현보 목사를) 구속을 시켰다"며 "이분의 표현이 과했다고 나도 생각은 한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행해진 보수 교육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선거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체가 충격"이라고 했다.

그는 "설마 했다. '선은 넘지 않겠지' 그런데 덜컥 구속을 했다"며



박현수 목사 ©기독일보 DB

"구속한 이유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어딜 도망가나. 밑보여서 낙인 찍은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침묵하는 것이다... 아래도 한국교회가 침묵한다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이렇게 겹박하고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정말로 답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다 모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적과 맞서서 잘 정비해서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앞서 겹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와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정승윤 후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손 목사와 정 후보가 세계로교회에서 대담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후 5월, 경찰은 손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진영 기자

TV 기독일보 신양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양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 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양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l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무신론자 상당수, 기도도 하고 사후 세계도 믿는다



©Imad Alassiry/Unsplash.com

최근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국제적 조사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는 사람들, 이를바 ‘무신론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신을 믿고 기도하며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영국에서는 무신론자의 약 24%가 신을 믿는다고 답했으며, 독일(27%), 프랑스(20%), 캐나다(25%), 미국(45%)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더 널리 퍼져 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무신론자의 40% 이상이 사후 세계를 믿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무신론자들은 종교적 소속이 없음에도 기도나 예배 참석 등 종교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55%가 가끔 기도한다고, 영국에서는 약 34%가 종교 예배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미국

에서는 무신론자 여성의 63%가 자연에 영혼이 깃들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남성은 46%에 그쳤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영적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무신론자들은 특히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페인의 경우 종교가 없는 성인의 77%는 종교를 미신적 사고라고, 71%는 종교가 편협함을 조장한다고, 62%는 종교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했다.

반면 브라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무종교인 중 약 4분의 1 이하 만이 종교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답했다. 이들 국가의 다수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무종교인은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쉘 기자

영 런던서 ‘생명을 위한 행진’ 1만여 명 참가



영국 생명을 위한 행진. ©March for Life UK

영국 전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시민이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 UK 2025(March for Life UK 2025)’에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최소 1만 명이 행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행사에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지만, 주최 측은 무신론자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교회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국회 의사당 광장까지 행진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올해 행진에는 성공회·가톨릭 주교들을 비롯해 복음주의 설교자 글렌 스크리브너, 크리스천 컨센(Christian Concern) 대표 안드레아 월리엄스, 복음주의 신학자 아론 에드워즈 박사, 칼라록하트 하원의원, 생명운동가 리건 킹 등이 지지를 보냈다.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록하트 의원은 “인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이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공동 디렉터 이사벨 본-스프루스는 연설에서 “태아는 값진 생명인가, 아니면 무가치한 조직 덩어리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정치인, 목회자, 의사, 언론인 등 모든 이가 선택해야 한다. 두 세계관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스프루스는 “숫자보다 기쁜 것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생명

옹호 이야기들”이라며, 대학에서 생명운동 동아리를 만들려는 학생이나 기도 필 요성을 절감했다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부 참가자는 교회 내 커피 모임을 통해 생명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리적 차이를 넘어 다양한 교단의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 된 모습이 특히 감동적이었다”며 “런던 중심부가 다른 시위로 혼란스러웠지만, 생명 행진 참가들은 평화와 기쁨으로 그들의 확신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에드워즈 박사는 이번 행사를 “낙태의 오명을 이 땅에서 지우기 위한 중요한 공적 증언”이라며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스크리브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낙태의 규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 태어난 뒤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낙태 클리닉 인근 완충지대에서 ‘침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애덤 스미스-코너 역시 현장에 참석해 “생명 존엄을 위한 훌륭한 증언이었다”며 “우리는 아기와 노인을 보호해야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동 디렉터 벤 대처는 “더 많은 이들이 생명운동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권을 말하려면 먼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생명도 너무 작거나, 어리거나, 의존적이라서 가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권리는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호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평신교초성경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복음화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30
주일학교 오후 1:3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화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아침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대벽기도회 오전 10: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대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育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30
주일학교 오전 10:30

이수호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고광선 담임목사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cs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정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org

주일1부 예배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예배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예배 11:30
EM예배 1부 오후 9:45/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GRC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 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장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년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데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별다른국제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데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화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천양예배 오전 5:30(수)
중복기도 오전 9:30(목)
제자서성 오전 9:30(금)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부예배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인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도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성례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교류부서 오후 7:3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정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崇拜회 오후 7:30
4부 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교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파키스탄 순례 가던 가톨릭 신자 무슬림 청년에 피격 사망



앉아 있던 아프잘이 제지하자 그를 끌어내 폭행했다.

순례자들이 간신히 상황을 벗어나 길을 재개했으나, 주유소에 정차했을 때 같은 청년들이 무장한 채 나타났다. 이들은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겨누고 총격을 가했으며, 아프잘은 목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촌 해리스는 팔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범인으로 파루카바드 출신 무함마드 와카스를 특정해 사건을 접수했으나, 사건 발생 이후 아직 체포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아프잘은 생전 릭샤 기사로 일하며 부인과 네 아들을 부양해 왔다. 아프잘의 아들 빌랄은 “부모님 모두 힘들게 일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전했다.

기독교인 변호사 카시프 네마트는 이번 사건이 명백히 종교적 박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연히 자동화기로 범행이 이뤄졌음에도 반테러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런 태도가 다수 집단의 폭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마트 변호사는 이끄는 구드 사마리탄 사회개발재활단체는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해 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경찰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약자에 대한 폭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 공동체의 연대를 촉구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이며,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국가 8위에 올라 있다. 최승연 기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아프잘 마시의 모습.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courtesy of famil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편자브주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탄생 대축일 순례에 나섰다가 무슬림 청년들의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7일 라호르의 삼나바드 지역에 거주하던 아프잘 마시와 그의 사촌 해리스타릭 마시는 친척, 여성, 아동 등 12~13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세이크푸라 지구 마리암아바드의 성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와 동행했던 동승자에 따르면 새벽 1시 30분경 세이크푸라 고속도로에서 이들의 차량은 두 대의 오토바이를 탄 무슬림 청년 3명에게 가로막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여성 승객들에게 희룡성 발언을 하며 차량을 위협했고, 이에 앞좌석에

의료적 안락사, 인간 존엄을 해치는가



분의 댓글 역시 이 논리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는 성경적 인간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감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된다고 쉽게 느낀다. 이런 순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의료인조차 치료 불능의 상황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며, 오히려 ‘평화로운 죽음’을 드는 것이 자비라고 착각할 위험에 빠진다.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고통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삶의 작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다.

기도하며 곁에 서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모두가 그들에게 살아 있는 위로가 된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을 통해 고통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증언하셨다.

인간 존엄을 왜곡하는 의료적 안락사

현대 사회는 자율성을 인간 존엄의 근거로 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됨이 존엄의 근거라고 말한다. 의료적 안락사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지위에서 끌어내림으로써 결국 모든 사람을 비인간화한다.

기독교 의료인들뿐 아니라 많은 양심 있는 의료 종사자들이 의료적 안락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치유자로 부를 받았지, 죽음을 드는 자로 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학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의료적 안락사는 종종 ‘연민’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다. 가족과 공동체가 보여주는 사랑과 동행이야말로 의학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생명 불길기를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의학의 본질을 왜곡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단순히 법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들이 삶을 불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최승연 기자

빌 데이비스 교수. ©Christian Post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빌 데이비스 교수의 기고글인 “의료적 안락사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What do Christians believe about Medical Assistance in Dying?)를 8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빌 데이비스 교수는 조지아주 루아웃 마운틴에 있는 커버넌트 칼리지(Covenant College) 철학 교수이자,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철학 겸임 교수이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2025년 6월 1일, 뉴욕타임스는 캐나다의 ‘의료적 안락사(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제도를 다루며, 폴라리치(Paula Ritchie)의 사례를 중심으로 긴 기사를 보도했다. 그녀는 수년간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싸웠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성경적으로 볼 때, 폴라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로 인한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나타난 비극의 한 단면이다. 어떤 이는 이 타락의 영향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게 경험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의료적 안락사 법을 반대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런 고통 속에서 빠른 죽음을 ‘해결책’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귀 기울이는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친다(시편 24:1, 신명기 10:14).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로서만 생명을 거두실 권한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창세기 1:26~27)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의료적 안락사를 지지한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죽음을 원한다면 드는 것이 오히려 자비라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달린 대부

의료적 안락사는 종종 ‘연민’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다. 가족과 공동체가 보여주는 사랑과 동행이야말로 의학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생명 불길기를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의학의 본질을 왜곡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단순히 법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들이 삶을 불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10
3부예배 오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토) 오후 6:30(일)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화여, 성숙하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강문수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회) 오후 11:00
주일 2부예배(미지역) 오후 11:00 대학령년부(College) 오후 1:30
유아유치부(K-2) 오후 10:30 학교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후 10:30 새벽예배(화-토) 오후 6:00

LA 북부 지역,拉斯ベ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회) 오후 11:00
주일 2부예배(미지역) 오후 11:00 새벽기도회(음악팀) 오후 6:00
유아유치부(1-5학년) 오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후 6:00
초등부(6-12학년) 오후 11:00 Youth(6-12학년)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 예배 1부 오전 8:30 중고등부 오후 9:30AM/11:15AM
주일 예배 2부 오후 10:30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예배 3부 오후 12:30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곽덕근 담임목사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이충환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EM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화-토)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성찬회 저녁 7:45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6:00
주일 예배 3부 영어예배 오후 7: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15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45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2: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EM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제이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 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LA, CA 9001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고기, 김치만두 차차 오방탕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ADU 전문****리모델링!****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디자인 설계 시공****실내구조 변경****집수리 일체****“25년 건축의 딛이고 지금 상담해 보세요”****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견적
상담

OC

949-781-9111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목동 칼럼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두고 온 만주 별판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조선 족과 한족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게 되었다. 필자 역시 연길, 통화, 영안, 무단장, 하얼빈, 훈춘, 장춘, 심양, 강평, 내몽골 인근 교회들을 두루 방문했다. 놀라운 것은, 그곳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처럼 치유와 축사와 같은 능력이 드러났으며, 이는 부족한 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당시 조선족 사회는 큰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다. 많은 가정이 이산가족이었고, 부부 중 한 명 혹은 모두가 한국으로 일하러 떠난 사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흔했다. 남편이 술에 의지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가정도 많았다. 그 속에서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장학 사역을 시작하였다.

현지 목회자들이 추천한 학생들을 면담하며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격려하였

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과 신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며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정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로 자라났다. 이 장학 사역은 30년 동안 수만 명을 후원하며 각 지역 교회의 부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필자가 섬긴 교회의 성도들이 해마다 선교 기간마다 \$300~\$500 을 기쁨으로 봉헌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을 쉼 없이 이어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30년 전부터 동북 삼성 지역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여 성전 건축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에 비전 50 선교회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원리를 따라 현지 교회의 헌신을 우선 요구하였다. 교회의 절반 현금이 마련된 것을 확인한 후, 나마지 절반을 지원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3개 조선족·한족 교회 예배당을 봉헌할 수 있었다. 대형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동시에 건축 사업이 지역 교회에 도움은 되었으나, 선교의 확장성과 부흥보다는 안일함으로 이어지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필자는 선조들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만주 별판을 밤차를 타고 수없이 오갔다. 윤동주시인의 「별 헤는 밤」처럼, 기차 창가에서 만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시간 기도하고 했다. 그러나 2010년을 지나면, 동북 삼성 지역 선교의 확장성과 역동성이 점차 사라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많은 한국 교회의 지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선족 교회의 영적 순수성과 자생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필자는 만주 별판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비전 50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고 온 만주 별판’은 비전 50선교의 출발지였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만주 별판에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 또 감사할 뿐이다.

강준민 칼럼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51하).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막 10:52).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5).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 속에 풍성한 은혜를 숨겨 두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건강과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지 않은 가시를 주셔서 그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그 가시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죽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상).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을 통해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거부하고 싶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겸손’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고후 12:7). 그는 가시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겸손처럼 좋은 선물, 겸손처럼 복된 성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약 4:6).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은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 12:9 하 - 10). 바울은 육신의 힘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신을 약하게 하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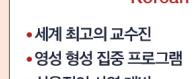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영혼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이 전도 하길 원했던 곳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계도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마계도나 지방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 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는 그가 원했던 곳이 아니었고, 감옥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깊은 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16:30 - 34).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군인들과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빌 4:22).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부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부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십니다. 정말 거부하고 싶은 장소에서 우리를 키웁니다. 정말 거부하고 싶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자주 묵상합니다. 그는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을 통해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물론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거부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거부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창 50:20). 예수님이 가장 거부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나 관계, 혹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두신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을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론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의 결론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보” 검색

유튜브: “탈보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회(M.Div), 신학회, 선교학회,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입학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훈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리지향적 교육을 주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학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퍸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성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info@evangelia.edu

www.evangelia.edu

www.evangelia.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www.itla.edu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ΙΧΘΥΣ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ΙΧΘΥΣ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Loving Worship

Praise Team

Tickets

\$10 | 213.357.1565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Saturday [토]
10.04.2025 — 6:30PM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Sunday [주일]
10.05.2025 — 7:30PM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Friday [금]
10.10.2025 — 7:30PM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

LOVING
WORSHIP



진유철 칼럼

말레이시아에서의 ‘열방전’ 수련회를 다녀와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C국 사역자들의 말레이시아 ‘열방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생각과 달리 약함과 부족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 오후 청년 교구의 아외예배까지 잘 마치고 공항에 가서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랑으로 인하여 부족한 마음이 채워짐을 깨달으며 두려움이 믿음의 용기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는 LA에서 비행기 출발시간부터 싱가폴 공항을 경유하여 총 22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반도보다 1.5배 큰 땅에 인구가 3천5백만 명 되는 현법상 이슬람 국가로 매일 06시가 되면 온 동네에 있는 모스크에서 확성기를 통해 요란한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교회나 성당, 절과 힌두성전도 있지만, 법으로 말레이인들의 전도와 개종을 엄격히 금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성도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 때는 전 세계 모슬렘의 경제권이 집중되어 큰 빌딩들이 즐비하고, 제가 가본 동남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보다 외견상으로는 부유해보였습니다. 이번에 ‘열방전’ 수련회의 장소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로 중국계 3세인 담임목사님이 조용기목사님의 영성을 배운 이후 놀라운 성장을 이룬 순복음교회였습니다. 특별한 배려로 교회 빌딩의 한 층을 빌려주었고, 모든 집회를 시간 제약 없이 마음껏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 또 쿠알라룸푸르 한인 순복음교회 윤국승 목사님이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며 저를 라이드 해주었고 사모님과 함께 섬겨주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C국의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실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오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열방전’을 위해 애쓰며 기다리셨던 권요셉선생님이 오지 못하였는데, 최근 들어 매주 일 예배마다 공안이 와서 사진을 찍으며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혹시 일어날 불상사에 대비하여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C국의 남서부 쪽의 사역자들 7명이 잡혀가서 심문을 당하였고, 2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핍박으로 작년보다 7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회 이틀째 날에는 많은 일을 담당하는 한국 사역자 정선생님의 C국 체류비자를 제공하는 회사를 공안이 급습

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초긴장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련회 내내 간절한 기도로 용기를 얻어 돌아가셨는데, 무사히 입국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다 보니 새벽부터 밤까지 육신의 피곤함은 개의치 않는 처칠함으로 기도하며 매달렸고, 부모를 따라온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낮이고 밤이고 긴 설교를 마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시차와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비장함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간증하거나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두려워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역자들과 자녀들이 많아서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돋든지’의 사명을 순종하는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살롬!

김영한 칼럼

WEA는 어떤 단체이며 신학은 무엇인가(I)

머리말

올해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WEA 총회 개최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가 성공적으로 자전·자립·자치하고 사회적으로 주도 종교로서 안착했는데 이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초청하여 21세기 선교의 비전과 방식을 함께 의논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그리고 동성애, 문화 마르크시즘, 세속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가 자비력을 가지는 지구촌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 되신다’는 성경적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주의가 증언의 나팔을 높이 불도록 한국 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소속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 Korea Evangelical Fellowship)는 올해 2월 “세계복음주의운동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WEA신학과 현황”에 대하여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동안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의 일부 보수교회 연합단체에서 “WEA가 신사도 및 신복음주의적이다”고 비난하면서 WEA 서울총회 개최 불가를 천명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예장 합동 증경회장단의 WEA 총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WEA 서울총회 신학위원회가 “WEA에 대한 증경총회장단의 입장이 WEA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 중대한 왜곡과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는 신학위원회가 그동안 WEA에 대해 제

기한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한 서한(2025년 8월 14일 답변)에 근거하고 있다. 2025년 8월 14일 WEA의장 Dr. Shana가 WEA서울총회 신학위원회에 보내온 서한(A4 용지 3쪽)은 WEA에 대해 가해진 혐의를 벗기기에 충분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WEA 신학의 투명함, 복음에 대한 WEA의 확신, 종교다원주의의 지지하지 않음, 다른 입장 가진자들과 대화이유는 신학적 양보가 아닌 전략적 근거: 복음의 진리를 직접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적대감과 갈등을 피하기 위함,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서기를 원함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신학위의 설명에 납득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가 ‘WEA는 신사도와 신복음주의가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한국복음주의 신학계의 한 원로신학자로서 이 사실을 보고만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부족하나마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신근본주의의 분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복음주의운동과 함께 선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이다.

필자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신학부에서 8년

간,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1년간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2년간 연구한 해외 연구 경력과 국제기독교연합기관 방문 및 교류 경험을 갖고 있다. 2002-2020년까지 18년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신학위원장, 2008년-2016년까지 8년간 AEA(아시아복음주의 연맹)의 신학위원장, 2020년부터 현재까지 KEF 자문

위원으로 섭기는 경험에 따라서 필자가 아는 WEA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WEA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신학계 원로 한 사람으로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정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해주기를 바란다.

I.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WEA를 거부하는 것은 신근본주의적 분리주의의 행태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은 1846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 당시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52개 교파로부터 800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 현재는 146개국 14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모임의 창립 동기는 신학적 자유주의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훈들리는 19세기 중반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보수교회 안의 일부 근본주의 진영이 WEA를 “신사도 운동 내지 신복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오해 내지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WEA 서울총회 신학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은 WEA의 모습을 바르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본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 노량진교회 린인식 목사,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 아신대 설립자 한철하 교수, 서울신대 초대총장 조종남 교수, 합신대 초대 총장 박윤선 목사, 고신대 총장 이근삼 교수 등 한국교회 선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울린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육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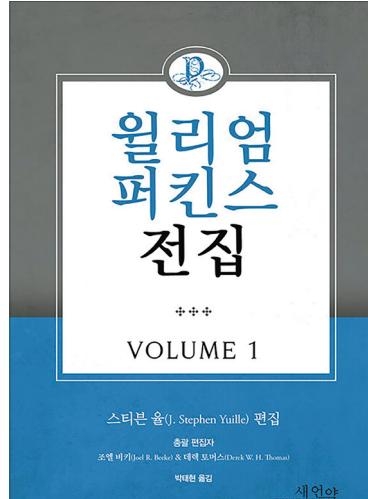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청교도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 성경 강해’ 윌리엄 퍼킨스의 위대한 유산



윌리엄 퍼킨스 전집 Volume 1

윌리엄 퍼킨스 | 박태현 역 | 새언약 | 1,440쪽 | 85,000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16~17세기 청교도, 게다가
역사적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인 청교도의 신학과
경건을 우리 손에 직접 들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
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
라” (히 11:4하). 명석한
신학자요 따뜻한 목회자요
경험적 설교자가
성도의 성회를 위한
지혜의 열매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퍼킨스의
저술이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제공하기
소원한다

무려 1,440페이지나 된다. 그것도 첫 번째 모음집만, 총 10권으로 구성된 윌리엄 퍼킨스 전집, 그 방대하면 서도 풍부한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의 깊은 묵상과 하나님 중심적 성경 강해가 우리말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격스럽다.

남침례신학교 총장 알버트 몰러는 청교도 신학을 형성한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윌리엄 퍼킨스가 있었다고 말하고, 제임스 패커는 “퍼킨스의 넓은 어깨 위에는 17세기 청교도 목회자들과 성직자들 전체가 서 있었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케임브리지 성 앤드류 대교회에서 강사 및 설교자로 봉사하고, 크라이스트 칼리지, 코르푸스 크리스티 칼리지 등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리처드 싱스, 존 코튼, 존 프레스턴, 윌리엄 애임스 등 젊은 청교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방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건한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엘 베키와 데렉 토머스가 총괄 편집하고 스티븐 윌이 편집한 윌리엄 퍼킨스 전집 1권은 ‘신구약 성경의 디아제스트 또는 하모니’와 ‘그리스도와 마귀의 전투 혹은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주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대한 경건하고 박학다식한 강해’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글에서 퍼킨스는 일종의 성경 연대기를 제시하는데(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고대 역사와 선지자들, 복음, 역사 전체의 요약 및 주목할 만한 도치 등을 담아내려 했다. 두 번째 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본문을 자세히 주해한다. 세 번째 글은 이 책에서 가장 긴 글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9절까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말씀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퍼킨스의 설교는 제목처럼 ‘박학다식’하다. 본문의 단어, 구문, 표현 등을 정말 오래 불들고 곱씹으며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교

훈과 적용, 반대와 그에 대한 대답 등을 상세히 풀어낸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시 119:97)”라고 고백했다. 청교도인들의 글을 읽을 때, 시편 기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해아린다.

청교도에게 큰 영향을 미친 퍼킨스의 글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칭송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없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심연에 깊이 빠져든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까지 자세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이런 주제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퍼킨스는 단순히 정황한 생각을 쏟아내는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 심상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어떻게 답해주시는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받아 적는 것이다.

퍼킨스의 저작은 교황주의와의 논쟁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로마가톨릭이 교황의 말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권위 있게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통과 성례로 그 의를 사려고 하는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진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과 관용의 종교로 변장하여, 얼마나 많은 경우 진리로 성도를 보호하고 세상을 책임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있는지 반성하게 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은 당시 청중에게 달콤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 체계에 관한 비판이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에 관한 배타적 선언이었다. 예수님은 분명 화평이 아니라 겸을 주려



책 발간을 기념해 진행된 컨퍼런스 강연자들. ©청목회

오셨다(마 10:34). 우리는 성령의 겸을 적실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청교도의 글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얻는 것일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강한 갈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오래 묵상하는 즐거움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갈망한다. 그들에게 해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영혼 깊이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 우리에게 청교도의 글을 읽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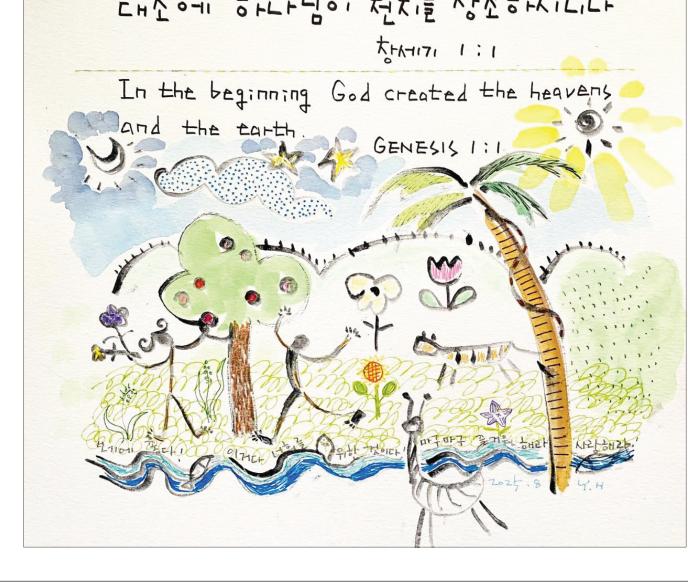
간은 아주 잠시나마 갈망을 채우는 안식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게 되기를 더욱 갈급하게 한다.

도서출판 새언약에서 정말 귀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에 감사하며, 이 시리즈를 읽는 모든 독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쁨을 누리며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RUSTED SCHOOL IN TOWN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LEARN MORE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언론매체의 역할

일제시대, 기독교 미술 계몽 앞장섰던 '뜻밖의' 단체

이 시기 기독교 미술은 드물어 인재·장소·시스템 환경 조건과 신앙적 예술가 배출 시간 부족 일간지들이 밀레, 고흐, 루오, 밀레이 등 신앙 작품 계속 소개 기독교 학교들 미래 인재 양성

구일제 침략으로 1905년 일본제국과 보호 조약을 맺고 급기야 1910년에 강제병합이 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후 우리 역사는 1945년 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며 엄혹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이 시기에 크리스천 예술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위축 국면을 맞았다. 그런 중에서도 개신교 작가로는 김은호가 예수의 부활을 주제로 한 작품을, 청년 박수근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토속적인 농촌 그림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 시기에 '기독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작가는 있어도, '기독교 미술'을 작업의 본령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작가는 흔치 않다. 이는 당시 미술계가 분화될 만큼 일정한 궤도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술 활동의 부진은 일제의 교회 탄압과 맞물려 있겠지만, 그 원인을 불충분한 제도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 미술문화가 정착하려면 '인재·장소·시스템' 등 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재'는 전문가 양성 기관인 대학 코스 이수가 필수적이고, '장소'는 갤러리나 미술관 등 작품을 보여줄 물리적 공간이 전제돼야 하며, '시스템'은 작가를 후원해줄 개인이나 단체 또는 유통기구를 말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를 충족 시킬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기독교 미술이 담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요인을 듣다면, 역시 인재 양성을

들 수 있다. 한 명의 미술가를 키우려면 수십 년이 요구된다. 게다가 신앙을 지닌 예술가를 배출하려면 더더욱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작가가 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내에는 미술대학이 전무해 화가 지망생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만 했다.

이런 와중에 언론의 역할은 막중한 것이었다. 흥미롭게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닌 작가들에 관한 소개가 꾸준히 이어졌다. 근대 미술을 밝혀준 장 프랑수아 밀레(Jean-Francois Millet, 1814-1875),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조르주 루오(Georges Henri Rouault, 1871-1958),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 1829-1896) 같은 작가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1920년대 '회화에 대한 일고찰(동아일보, 1924. 11. 17)'이란 기사에는 밀레(1814-1875)를 바람직한 예술가상으로 손꼽았다. 송순일은 화환을 들고 있는 미인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부르고 길가에 쓰러진 걸인의 주태를 '추한 그림'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오해라면서, 밀레의 '저녁 기도'는 힘든 노동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부의 모습을 진실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하며 "외형의 미가 아무리 곱다 해도 그 내면의 진리를 현출(現出)한다고는 못할 것이다. 추를 가리어 덮은 외형의 미보다는 추 그 자체에서 진이라는 미점(美點)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인과 여성(동아일보, 1930. 9. 4.)'에서는 밀레의 진실성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준다. "그는 경건으로 일생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 그는 할머니의 경건한 신앙의 감화를 받아 아름답고 순결한 그 마음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의 눈을 뜨게 할 만한 대걸작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동경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김용준도 '향토색'을 논의하면서 밀레에 주목했다. "전원화가 밀레 같은 사람은 선, 색, 기교보다도 먼저 앞서는 문제는 전원의 사상, 대지의 교훈, 종교의 세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려 했다(김용준, '회화에 나타나는 향토색의 음미', 동아일보, 1936. 5. 5)"며 그를 '위대한 전원의 사상가'로 불렀다.

밀레의 예술의



▲ 장 프랑수아 밀레, 양치는 여인, 1863,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본질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은 관점은 김주경의 '신인 융화의 만종(동아일보, 1937. 11. 7)'에서 발견된다. "그는 선대서부터 내려온 청백(淸白)한 교양을 받았고 동시에 전 가족이 기독교의 모범 속 신자요 또 자기도 그러하였으므로 인생은 이마에 맙을 헐림으로써 생존함이 아담의 영원한 숙명이요 순응함은 인생의 자연이라고 하는 기독교리적 자연주의를 갖게 된 것도 자연스런 일이었다."

밀레에 대한 고조된 관심은 동아일보 해 첫 호에 발간한 지면을 밀레의 '양치는 여인(동아일보, 1931. 1. 1)'으로 장식했던 데서도 찾아진다. 그 기사에서는 농부들의 소박한 삶에 눈길을 주었던 바르비종 화가 밀레의 '농인(農人) 화가로서의 순일한 화인(畫因)과 특수한 수법'에 주목하였다.

F. 밀레에 대한 팬덤 때문인지, 19세기 영국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의 <눈먼 소녀>를 '프랑스의 농촌을 그린(조선일보, 1930. 2. 20)' 밀레의 것으로 소개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눈먼 소녀>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등장한 라파엘 전파(Pre-Raphaelites)의 일원인 밀레이의 것이다.

한편 조르주 루오(1871-1958)에 대해서는 생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국내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미술인들도 목격할 수 있다. '근자의 루오(조선일보, 1940. 7. 5)'에서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데도 변함이 없다. 행상인, 곡마단, 기수, 댄서 등에 대한 그의 기호도 변함이 없다. … 기교가 힘차고 찬란하게 독창의 경지를 개척해 가고 있다."

국내 작가 중에는 조르주 루오를 따르는 화가가 유독 많았다. 가령 격렬한 색감과 필

치로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한 이중섭을 '동방의 루오'로 불렸으며, 박고석·황염수 등도 루오 작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선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가 1930년 12월부터 40회에 걸쳐 구미의 작가들을 소개한 '근대 태서미술순례' 연재 중 '반 고흐(일부 기사에서는 콜오, 고고호 등으로 표기)'에선 고흐의 가족, 미술상이 된 이야기, 런던 교회학교 교사, 신학교 준비, 보리나쥬 탄광 선교, 화가로 전향 등 그의 생애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그의 전생에 다대한 의미를 주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참을 수 없는 욕구로서 … 선을 사랑하고 참됨을 구하였던 도덕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미의 동경자였다"(조선일보, 1930. 12. 8)고 기술하였다.

기고자는 밀레, 렘브란트, 데카르트, 도미에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밀레의 영향이 커다는 진단도 잊지 않았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문서를 통한 기독교 예술의 소개가 있었다면, 일제강점기에서는 매스컴을 통한 기독교작가 소개와 기독교학교에서의 신문화 교육이 진행됐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일간지를 통해 명화를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유럽의 기독교 미술이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전해졌다.

소수의 작가들의 활동을 빼놓는다면 예술적 결실은 미미했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는 내일에 대비하여 역량을 비축하는 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 속에서 김은호의 눈부신 활동과 후진양성,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작품들, 그리고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미술의 계몽 등 구한말과는 약간 다른 동향이 포착된다.



▲ 동아일보에 실린 장 프랑수아 밀레의 '양치는 여인' 도판(동아 1931. 1. 1).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17회 선교와 이웃 돋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초가을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찬양제 출연팀

- ☆남가주장로성가단 (지휘 : 김정대)
- ☆한인로고스 교회 (지휘 : 이홍우)
- ☆실비치사랑의 교회 (지휘 : 송종현)
- ☆무궁화여성합창단 (지휘 : 지경)
- ☆나성한미교회 (지휘 : 이준실)
- ☆은혜찬양단 (지휘 : 지경)
- ☆미주여성코랄 (지휘 : 오성애)
-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 (지휘 : 김정대)
- ☆소프라노 (김시연)
- ☆테너 (오위영)

■일시: 2025년 9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나성한미교회 T.(626)444-0058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문의: (562)972-4548 (909)319-2158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이득표 장로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믄!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LOVING
주관 FORSHIP

